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4. 15 | 통권 제18호(2012-06) |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요약]

- 2011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로 상용근로자(-0.9%)보다 비상용근로자(15.1%)의 임금증가가 두드러짐.
-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임.
-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1% 미만의 수준에 그침.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종사상지위별로 임시직(4.5%)과 일용직(5.3%)의 임금증가율이 상용직(2.7%)보다 높게 나타남.
- 상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011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임금상승률은 5.0%로 전망되지만, 변수는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로 2011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반등효과가 있을 수 있음.

2011년 임금동향

- 2011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4천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0% 상승함.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9%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4.8%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은 각각

8.4%, 19.3% 감소함.

- 반면, 비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1%의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함.

- 2011년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0년보다 2.9% 감소함.

-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4.7% 감소함.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함.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천 원/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체근로자(5인 이상) (상승률)	-	-	2,569 (-)	2,636 (2.6)	2,816 (6.8)	2,844 (1.0)	
	실질임금상승률	-	-	-	-0.1	3.8	-2.9	
	상 용 직	임금총액 (상승률)	2,542 (5.7)	2,683 (5.6)	2,802 (4.4)	2,863 (2.2)	3,047 (6.4)	3,019 (-0.9)
		실질임금상승률	3.4	3.0	-0.2	-0.5	3.4	-4.7
		정액급여 (상승률)	1,874 (6.7)	1,992 (6.3)	2,057 (3.3)	2,139 (4.0)	2,234 (4.5)	2,341 (4.8)
		초과급여 (상승률)	158 (5.4)	166 (5.5)	179 (7.5)	175 (-2.2)	196 (12.2)	179 (-8.4)
		특별급여 (상승률)	511 (2.4)	526 (2.9)	566 (7.7)	550 (-2.8)	617 (12.3)	498 (-19.3)
	비상용직 임금총액 (상승률)	-	-	1,052 (-)	1,073 (1.9)	1,056 (-1.6)	1,215 (15.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임금총액 (상승률)	1,656 (3.9)	1,745 (5.4)	1,846 (5.8)	1,852 (0.3)	1,949 (5.2)	2,032 (4.3)	
	실질임금상승률	1.6	2.8	1.0	-2.4	2.2	0.3	
가계동향조사	전국(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2,926 (6.5)	3,098 (5.9)	3,287 (6.1)	3,280 (-0.2)	3,435 (4.7)	3,613 (5.2)	
	도시(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2,967 (6.4)	3,163 (6.6)	3,383 (7.0)	3,322 (-1.8)	3,479 (4.7)	3,670 (5.5)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5	4.7	2.8	3.0	4.0	
실질GDP상승률		5.2	5.1	2.3	0.3	6.2	3.6	
근로시간(월)	전체근로자(5인 이상) (상승률)	-	-	176.7 (-)	176.1 (-0.3)	176.7 (0.3)	176.3 (-0.2)	
	상용직 (상승률)	191.2 (-2.0)	188.4 (-1.5)	184.8 (-1.9)	184.4 (-0.2)	184.7 (0.2)	182.1 (-1.4)	

주 :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7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2011년 이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대상을 종사자 1인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며 산업분류를 개편(KSIC 8차 → KSIC 9차)하여 2008년 이후 소급함.

3) 임금자료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임금근로자 전체가 대상임.

4) ()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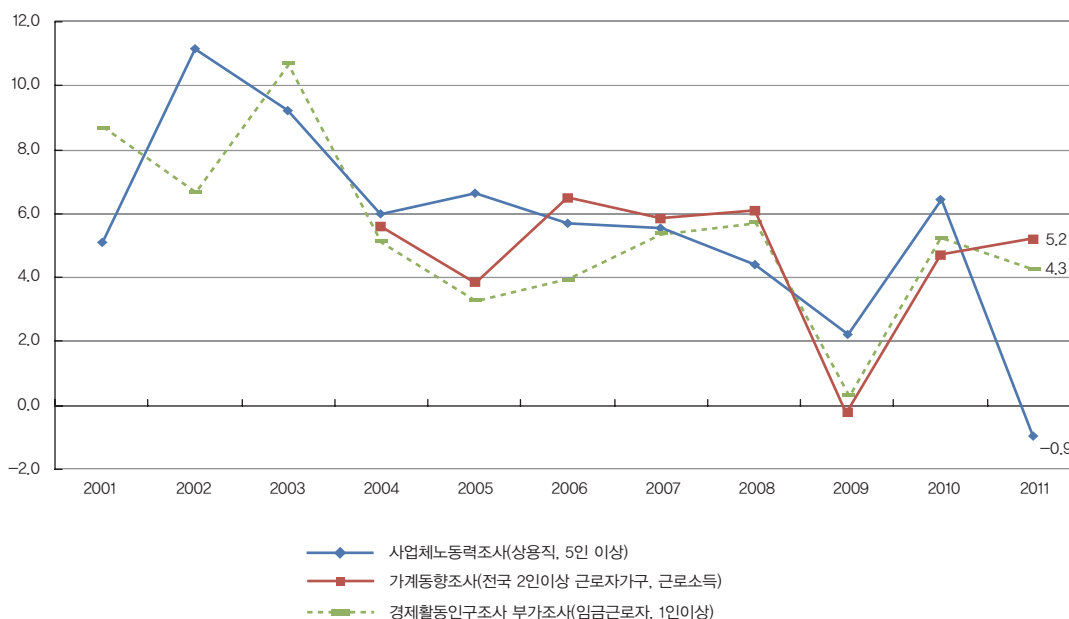
- 조사자료별로 임금상승률이 다른 양상을 보임(그림 1 참조).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따르면 2011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2,032천 원으로 전년대비 4.3% 상승함.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1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3,613천 원으로 전년대비 5.2% 상승함.
 - 2006~2010년까지 [그림 1]의 세 자료 모두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인 2009년에 임금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이후 2010년 회복함.
 - 그러나 2011년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각각 5.2%,

4.3%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2009년(2.2%)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함.
 - 향후 임금수준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는 정액급여 상승률은 2004년 이후 4~6%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반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은 2011년 큰 폭으로 하락함.
 - 2011년 경제성장률은 3.6%로 2009년 경기침체기의 성장률(0.3%)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2009년보다 더 큰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그림 1] 조사별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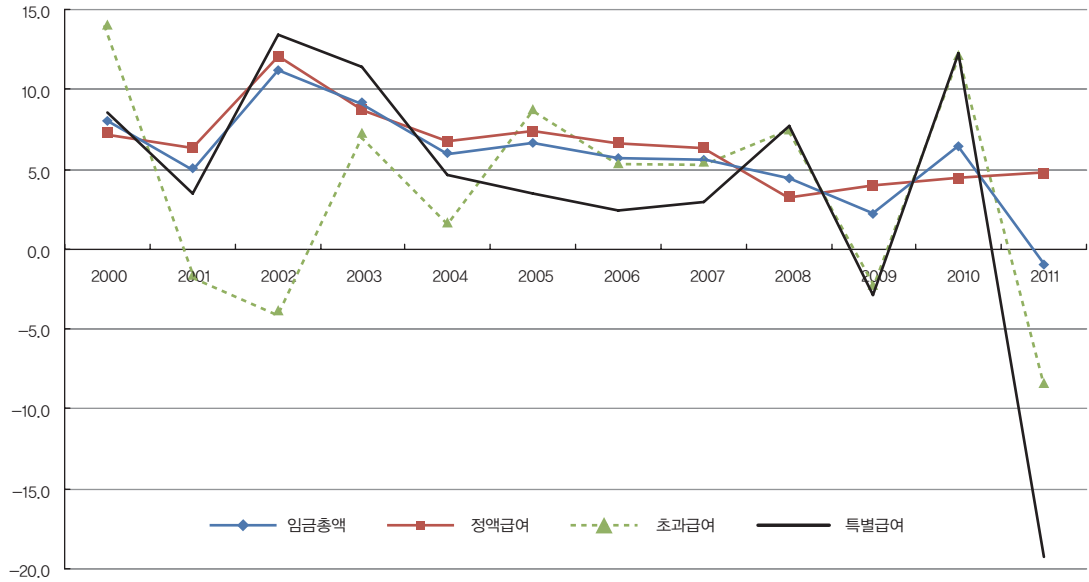
(단위:%)



주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그림 2] 5인 이상 상용직의 임금내역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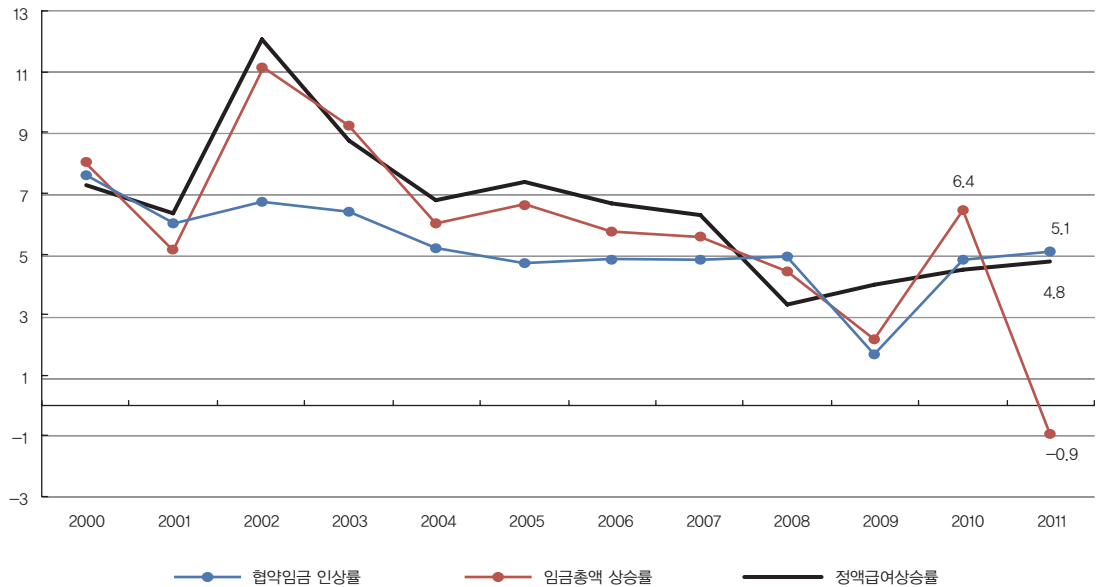
(단위: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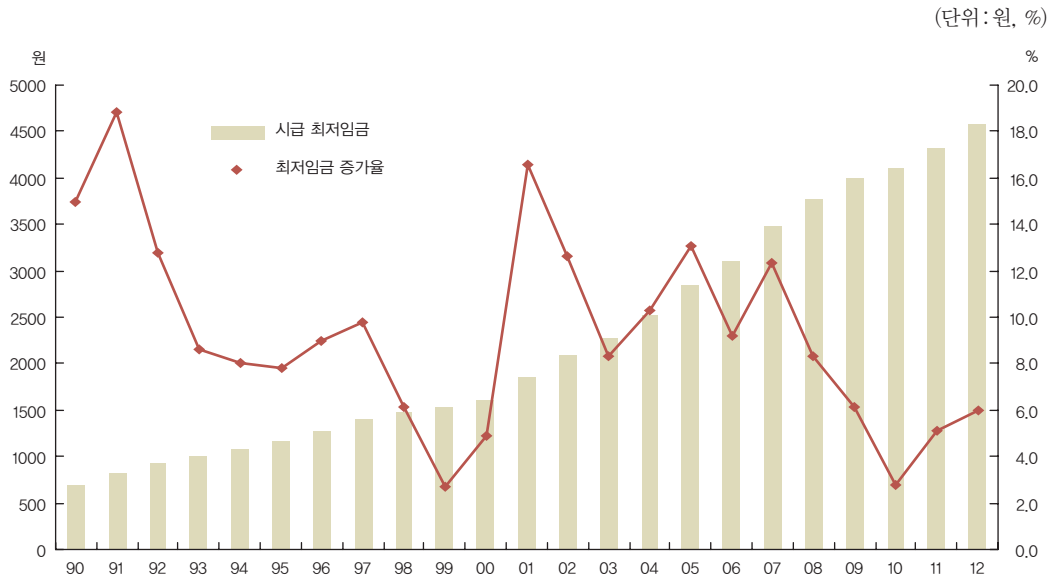
[그림 3]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협약임금 인상률'은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 결과 나타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 간 변동이 크지 않음
 3) 임금총액 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그림 4]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 :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5.1%임.
 - 2011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0년의 4.8%보다 0.3%p 증가함.
 - 2011년의 임금상승률에는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해 상용직 임금총액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그림 3 참조).
 - 정액급여 변동은 협약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2011년 대비 6.0%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됨(그림 4 참조).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2010년 대비 5.1% 인상됨.
 - 최저임금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2011년 부문별 임금동향

-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증가함.
 - 사업체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 사업체에서 2.8%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00인 미만에서 증가율이 높음.
 - 반면 100인~299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 미만으로 임금상승률이 낮음.
-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임금이 상승함.
 - 2011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567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7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4.5%,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94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5.3% 증가함.

〈표 2〉 규모별 임금 추이

(단위:천 원/월, %, 300인 이상=100.0)

	2008년 평균		2009년 평균		2010년 평균		2011년 평균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상대수준	
전 규모	2,569 (-)	[67.8]	2,636 (2.6)	[69.2]	2,816 (6.8)	[68.0]	2,844 (1.0)	[68.5]
5~9인	1,834 (-)	[48.4]	1,887 (2.9)	[49.5]	1,971 (4.5)	[47.6]	2,018 (2.4)	[48.6]
10~29인	2,153 (-)	[56.9]	2,187 (1.6)	[57.4]	2,318 (6.0)	[56.0]	2,382 (2.8)	[57.3]
30~99인	2,382 (-)	[62.9]	2,507 (5.3)	[65.8]	2,659 (6.0)	[64.2]	2,729 (2.6)	[65.7]
100~299인	2,796 (-)	[73.8]	2,830 (1.2)	[74.3]	2,991 (5.7)	[72.2]	3,019 (0.9)	[72.7]
300인 이상	3,786 (-)	[100.0]	3,809 (0.6)	[100.0]	4,140 (8.7)	[100.0]	4,154 (0.3)	[100.0]

주: 1)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안의 수치는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 상대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표 3〉 종사상 지위별 임금 추이

(단위:천 원/월, %)

	상용직	임시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상대수준 (상용직=100)	일용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2000	1,527 (-)	852 (-)	55.8	646 (-)	42.3
2001	1,649 (8.0)	916 (7.5)	55.6	689 (6.7)	41.8
2002	1,769 (7.3)	971 (5.9)	54.9	760 (10.3)	43.0
2003	1,958 (10.7)	1,032 (6.4)	52.7	759 (-0.2)	38.8
2004	2,036 (4.0)	1,080 (4.6)	53.0	779 (2.6)	38.2
2005	2,117 (3.9)	1,102 (2.0)	52.1	783 (0.6)	37.0
2006	2,184 (3.2)	1,139 (3.4)	52.2	814 (4.0)	37.3
2007	2,299 (5.3)	1,163 (2.1)	50.6	823 (1.1)	35.8
2008	2,409 (4.8)	1,212 (4.2)	50.3	875 (6.3)	36.3
2009	2,419 (0.4)	1,170 (-3.5)	48.4	858 (-2.0)	35.5
2010	2,500 (3.4)	1,221 (4.4)	48.8	898 (4.7)	35.9
2011	2,567 (2.7)	1,275 (4.5)	49.7	945 (5.3)	36.8

주:()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2012년 상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011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용직

-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수준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2011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38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4.1%,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4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7.1% 상승해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더 높음.

〈표 4〉 정규·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 추이

(단위:천 원/월, %)

	정규직	비정규직
2003	1,678 (15.3)	1,028 (5.3)
2004	1,771 (5.6)	1,152 (12.0)
2005	1,846 (4.2)	1,156 (0.4)
2006	1,908 (3.4)	1,198 (3.6)
2007	2,008 (5.3)	1,276 (6.5)
2008	2,127 (5.9)	1,296 (1.6)
2009	2,201 (3.5)	1,202 (-7.3)
2010	2,294 (4.2)	1,258 (4.7)
2011	2,388 (4.1)	1,348 (7.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표 5〉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7	0.0	10.6	11.2	-
1998	-25.0	7.2	4.7	-
1999	0.0	7.7	5.5	-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4.4
2009	-	-	-	2.2
2010	0.0	9.2	9.5	6.4
2011	3.5	-	9.4	-0.9
2012	2.9	-	9.1	-

주: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8) 2011년 이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9)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임.

자료: 한국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 연도.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

- 2012년은 경영계의 임금인상 제시율과 노동계 요구율의 격차가 큼.
 - 2012년도 한국노총의 임금상승 요구율은 생계비 및 근로자 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9.1%로 결정하고, 비정규직은 19.4%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 경영계(경총)는 경기둔화, 인플레이 유발, 양대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부담 등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2년 임금인상률을 2.9%로 제시함.
 - 한국노총과 경총 간에 서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 격차는 전년인 2011년보다 늘어 약 6.2%포인트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2012년 임금변화에는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2012년 임금상승률은 5.0%로 전망됨.
 -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실질임

금상승률을 추정한 후, 이를 5인 이상 규모의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환산하면 2012년에는 약 5.0%의 임금상승률이 전망됨.

- 2011년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보다 낮은 수준(1.0%)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2년은 이에 대한 통계적 반등효과와 공무원보수의 인상(3.5%), 2011년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의 요인이 임금상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2011년과 유사한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임금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을 가변적이게 할 중요한 변수는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로 2011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반등효과가 있을 수 있음.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 02-3775-5583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